

# 한국어판 말장애지수(Korean Version Speech Handicap Index)에 대한 예비연구

서울대학교병원 언어청각장애진료실<sup>1</sup>, 대구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<sup>2</sup>, 서울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<sup>3</sup>

박성신<sup>1</sup> · 최성희<sup>2</sup> · 차원재<sup>3</sup> · 홍영혜<sup>1</sup> · 정년기<sup>1</sup> · 성명훈<sup>3</sup> · 하정훈<sup>3</sup>

## 목 적

구강 및 구인두암 환자들은 치료 후, 말 문제(speech problem)에 대해 호소하고 있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는 없는 실정이다. 따라서 본 연구는 말 문제를 나타내는 객관적 지표로서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어판 말장애지수(Korean version Speech Handicap Index ; SHI)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.

## 방 법

43~68세 정상군 26명과 36~79세 구강 및 구인두암으로 인한 말문제를 호소한 환자군 16명을 대상으로 한국어판 말장애지수와 교대 및 일련운동검사(diadochokinesis ; DDK)를 시행하였다.

## 결 과

한국어판 말장애지수는 내적일관성과 검사-재검사 신뢰도

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 정상군의 평균은 총 지수(T) 0.81, 말 지수(S) 0.19, 심리사회적 지수(P) 0.38였고, 환자군의 경우 T 44.62, S 21.75, P 20.81 것으로 나타났고, 두 집단의 유의성 검증에서 한국어판 말장애지수의 총 지수와 하위항목 지수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. 환자군에서 한국어판 말장애지수와 교대 및 일련운동검사의 상관성 분석 결과, 3음절 일련운동(sequential motion)과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.

## 결 론

기존 검사와 비교적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한국어판 말장애지수는 구강 및 구인두암으로 인한 말장애에 대한 평가시 기존 검사를 보완하기 위한 도구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.